

GCF 공여협정 체결 촉구

공여 약속 42%, 법률협정으로 전환

2015.4.30, 대한민국 송도 - 2015년 4월 30일 현재 녹색기후기금(GCF)은 4십억 달러에 상당하는 공여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2014년 첫 공여회의(pledging conference)에서 약속된 금액의 42%에 해당한다.

GCF는 2014년 11월 베를린에서 열린 고위급 공여회의(High-Level Pledging Conference) 때 약속된 금액의 최소 50%, 즉 47억 달러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로 되어있다.

공여 정부들은 이런 기준에 동의하고 4월 30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COP21 이전에 저탄소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프로그램에 자원을 할당하는 중요한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헬라 쇠흐로흐 사무총장은 "제 때에 공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준 모든 정부에 감사한다. 이제 다른 모든 정부들도 GCF가 계획대로 자금분배를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시급히 마무리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여회의 이후 부분적으로는 전액이든 공여협정을 맺은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국민 일인당 공여액수도 매우 중요한데, 스웨덴이 국민 일인당 가장 많은 공여금이 큰 국가이다.

2010년 멕시코 칸쿤 COP16에서 설립된 GCF는 개도국에 예측가능하고 충분한 신규 추가 기후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기구이다. 칸쿤 협정은 기후 행동을 위한 새로운 다자 재정의 상당 부분이 GCF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그 액수는 오늘날까지 GCF에 약속된 초기 금액인 102억 달러 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

UNFCCC의 재정 메커니즘으로 지정된 GCF는 개도국에서 저탄소 배출 기후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2도씨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쇠흐로흐 사무총장은 "GCF는 새로운 기후 재정에 있어 핵심 지표로서 기후 재원을 실제로 가시화하고 이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며, "UNFCCC 체제 하에서 GCF를 기후 재정에 관한 제 1 글로벌 투자수단으로 만드는 국가들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테스트이다"고 설명했다 "기후재정과 GCF는 파리 신기후협정의 결정적인 토대"라고 강조하며 "GCF의 성공은 파리 협정 결과를 위한 인센티브"라고 덧붙였다.

GCF 에 대한 공약금(Pledges) 및 실제 공여금(Contributions)

2015.4.30 현재

- 총 33 개 정부가 GCF 에 공여 약속을 함 (8 개 개도국 포함)
- 공여 약속 모두를 약속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공여 협정(contribution agreements)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까지 약속된 총 금액	102 억 달러 (USD)
공여 협정 체결 금액	4 십억 달러 (USD)
퍼센티지 (%)	42.5%
*퍼센티지는 현재까지의 공여 협정 체결 금액을 2014 년 11 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GCF 고위급 공약 회의(High-Level Pledging Conference)때 까지 공약된 93.5 억 달러(USD)로 나눈 것	

2015.4.30 현재 소개재원조성(IRM) 공약 현황

- GCF 공위급 공약회의(High-Level Pledging Conference) 때 정한 환율 기준(GCF/BM-2015/Inf.01),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공약					무상증여 ¹	
	공약액			약정액	국민일인당 공약액	공약액	약정액
	공약 화폐		USD eq	USD eq ²	USD eq	USD eq	USD eq
호주	AUD	200.0	186.9	-	7.9	186.9	-
오스트리아 ³	USD	25.0	25.0	26.8	2.9	25.0	26.8
벨기에	EUR	51.6	69.0	54.3	6.2	69.0	54.3
캐나다(무상증여) ⁴	CAD	300.0	277.0	-	7.8		-
캐나다(차관)	CAD	TBD	TBD	-			-
캐나다(쿠션)	CAD	TBD	TBD	-			-
칠레	USD	0.3	0.3	-0.3	0.0	0.3	0.3
콜롬비아	USD	6.0	6.0	-	0.1	6.0	-
체코	CZK	110.0	5.3	0.5	0.5	5.3	0.5
덴마크	DKK	400.0	71.8	71.8	12.8	71.8	71.8
핀란드	EUR	80.0	107.0	-	19.8	107.0	-
프랑스(무상증여)	EUR	432.0	577.9	577.9	16.0	577.9	577.9
프랑스(차관)	EUR	285.0	381.3	-		105.1	-
프랑스(자산)	EUR	57.0	76.3	-		-	-
독일	EUR	750.0	1,003.3	1,003.3	12.1	1,003.3	1,033.3
아이슬란드	USD	0.2	0.2	0.2	0.5	0.2	0.2
인도네시아	USD	0.3	0.3	0.3	0.0	0.3	0.3
이탈리아	EUR	250.0	334.4	-	5.5	334.4	-
일본	JPY	154,028.7	1,500.0	-	11.8	1,500.0	-
라트비아	EUR	0.4	0.5	0.5	0.2	0.5	0.5
리히텐슈타인	CHF	0.1	0.1	0.1	1.5	0.1	0.1
룩셈부르크	EUR	5.0	6.7	6.7	13.4	6.7	6.7
멕시코	USD	10.0	10.0	-	0.1	10.0	-
모나코	EUR	0.3	0.3	-	8.8	0.3	-
몽골	MNT	90.0	0.0	-	0.0	0.0	-
네덜란드	EUR	100.0	133.8	133.8	8.0	133.8	133.8
뉴질랜드	NZD	3.0	2.6	2.6	0.6	2.6	2.6
노르웨이	NOK	1,600.0	257.9	257.9	50.6	257.9	257.9
파나마	USD	1.0	1.0	0.5	0.3	1.0	0.5
페루	USD	6.0	6.0	-	0.2	6.0	-
폴란드	PLN	0.4	0.1	0.1	0.0	0.1	0.1
대한민국 ⁵	USD	100.0	100.0	14.2	2.0	100.0	14.2
스페인	EUR	120.0	160.5	-	3.4	160.5	-
스웨덴	SEK	4,000.0	571.2	581.2	60.5	581.2	581.2
스위스	USD	100.0	100.0	30.0	12.2	100.0	30.0
영국(자산)	GBP	576.0	968.8	968.8	19.1	968.8	242.2
영국(무상증여)	GBP	144.0	242.2	242.2	9.3	242.2	-
미국	USD	3,000.0	3,000.0	-		3,00.0	3,973.6
총계			10,193.5	3,973.6		9,564.1	3,667.7
EU	USD		4,4745.0	3,667.7		4,392.6	3,667.7

각주

1. 무상증여: 공여 방침(Policies for Contributions) 조건에 기초하여 산정
2. 미달러로 환전(USD eq.), GCF 고위급 공약회의에서 설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함(GCF/BM-2015/Inf.01)
3. 오스트리아 공약은 미달러(USD)로 발표되었으나, 유로화(EUR)로 공여협정 체결(2천만 유로). 표에 제시된 약정금액은 2번 방식으로 산정
4. 공약 유형 미발표. 무상증여 일부분은 차관 그리고/혹은 자산(capital)로 제공될 수 있음
5. 이 약정액수에는 GCF 고위급 공약회의에서 발표한 공약액수를 포함
6. 스위스는 GCF가 자금 분배의 실질적 권한성을 가지게 되면(GCF 고위급 공약회의 때 약속된 935억 달러(USD)의 50%가 공여협정으로 체결될 때), 1억 달러(USD)의 나머지에 대하여 공여협정 체결할 계획